

백제 무왕의 사찰건립과 권력강화

저자 (Authors)	김주성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6 , 1993.4, 255-282(28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6 , 1993.4, 255-282(2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86565
APA Style	김주성 (1993). 백제 무왕의 사찰건립과 권력강화. 한국고대사연구, 6, 255-28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0 10: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백제 무왕의 사찰건립과 권력강화

金 周 成

(전남대 강사)

I. 머리 말	IV. 武王의 권력강화
II. 彌勒寺의 건립	V. 맺 음 말
III. 王興寺의 건립	

I. 머리 말

聖王의 管山城 패전 이후 백제의 왕권은 威德王·惠王·法王代를 거치면서 약 50여 년 동안 귀족세력에게 크게 견제를 받아왔었다. 武王代에 이르러 마침내 백제의 왕권은 크게 강화되었다고 한다. 이 점은 현재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¹⁾ 필자 역시 이 견해가 옳다고 여긴다. 그러나 무왕의 권력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얼마만큼 가능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²⁾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서, 필자는 무왕의 사찰 건립에 주목하게 되었다. 무왕대에는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1)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1988, pp. 192~207;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고대편), 1982, p. 181.

2) 武王의 익산경영, 彌勒寺 창건, 선화공주와의 결혼을 중심으로 하여 무왕의 권력강화를 설명한 견해가 있다(盧重國, 위의 책, pp. 197~207). 이것은 무왕의 권력강화방법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왕의 권력강화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권력강화방법을 설명하는 데에도 필자와 많은 견해 차이가 있다. 이 점은 논술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彌勒寺가 건립되었다. 미륵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논고가 이미 발표되었다.³⁾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미륵사가 왜 건립되었으며, 미륵사가 건립되었던 정치·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료의 부족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사료라 할지라도 사료상에 혼동이 있기 때문이다.

무왕대에는 또 하나의 사찰인 王興寺가 완공되었다. 왕흥사는 지금까지 별로 주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36년이란 긴 세월 속에 완공된 왕흥사였다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왕흥사는 사료상으로 미륵사와 혼동되어 있는 점에서만 주목되었다. 미륵사의 문제를 추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미륵사와 왕흥사를 같은 사찰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찰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륵사와 왕흥사는 같은 무왕대에 완공되었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사찰이었다.⁴⁾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료상에 혼동되어 있는 까닭이 궁금하다. 그만큼 미륵사와 왕흥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그 건립배경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에서 필자는 먼저 미륵사 창건에 관련된 孺童說話, 혹은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라고 불리는 《三國遺事》武王條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미륵사 창건의 정치·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볼게 될 것이다. 이어서 무왕대 36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왕흥사의 건립배경을 백제의 귀족회의인 정사암 회의와 연결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무왕의 전제권력 강화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졌으며, 얼마만큼 가능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곧 미륵사와 왕흥사 건립에 대한 논의를 보강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3) 대표적인 논고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金煥泰, 〈彌勒寺創建緣起說話考〉, 《馬韓·百濟文化》 창간호, 1975; 李丙巖, 〈百濟彌勒寺 創建 年代에 대하여〉, 같은 책; 洪思俊, 〈彌勒寺址考〉, 같은 책.

4) 洪思俊, 위의 글, pp. 164~167.

적은 사료를 통하여 백제 무왕대의 정치·사회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한 결과 적지 않은 오류를 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彌勒寺의 건립

미륵사는 매우 재미있는 창건 연기설화를 가지고 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髫童由此得人心 卽王位一日 王與夫人 欲幸師子寺 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駕致敬 夫人謂王曰 須創大伽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詣知命所 問填池事 以神力一夜傾山 填爲平地 乃法像彌勒三 會殿塔廊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 眞平王遣百工助之 至今存其寺(《三國遺事》 권 2, 紀異 2 武王).

왕과 왕비가 師子寺로 가는 도중에 龍華山 밑에 있는 큰 못가에서 彌勒三尊이 출현하였다, 이에 왕비의 요청을 받은 왕이 知命法師의 신기한 힘을 빌려 못을 메우고 그 자리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이다.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왕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B-① 古本作武康 非也 百濟無武康

이라고 하여 古本에는 武康王이었다고 한다. 《삼국유사》 찬자인 일연은, 백제에는 武康王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백제 30대 무왕으로 비정하였다. 그런데 일연은 같은 《삼국유사》 王曆篇에서는

B-② 第三十武王 或云武康 獸丙 或小名一耆師德

이라고 하여, 무왕을 혹은 무강왕이라 하였다. 일연이 착각하여 백제에

는 무강왕이 없다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의 사료를 염두에 둔 편자 일연이 왕력편에 ‘或云武康’이라는 구절을 삽입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미륵사를 창건하였던 무강왕은 연기설화에 의하면 신라의 眞平王과 같은 시대의 백제왕이었다고 한다. 신라의 진평왕과 같은 시대의 백제왕 으로서는 위덕왕과 법왕·혜왕·무왕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무강왕 과 가장 통할 수 있는 왕은 무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설화에 보이는 서동과 진평왕의 친 밀한 관계는 당시 백제와 신라 사이가 서로 적대지간이었다는 점을 고 려해볼 때 사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근거로 하여 미륵사를 창 건하였던 왕을 신라의 진평왕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비정하는 점에 동 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⁵⁾

그러나 연기설화는 어디까지나 설화임을 명심해야 한다. 설화상의 어 떤 부분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할 수도 있으며, 어떤 부분은 일치하지 않 을 수도 있다. 이를 가려내는 데는 설화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사실 여부의 판단보다는 설화 형성의 배경을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설화는 미륵사 창건설화만큼 미륵의 이상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 을 것이다.⁶⁾ 미륵이 도솔천에서 앉아 있었던 獅子床座를 상징하였던 獅子寺, 미륵이 하생한 翹頭城의 金沙로 덮인 땅과 곳곳에 금은이 쌓여 있 다는 것을 상징하는 산처럼 쌓인 금, 미륵이 성불하였다는 龍華樹를 상 징하는 용화산, 미륵의 삼희설법을 상징하여 彌勒像·殿·塔·廊廡 등을 각각 세 개씩 건립하였던 점 등은 미륵의 이상세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 다. 미륵이 하생하여 증생을 교화한 세계에서는 갈등과 미움과 싸움이

5) 이 점에 근거하여 미륵사 창건이 東城王代(李丙歲, 앞의 글) 혹은 武寧王代 (史在東, 《武康王說話의 研究》, 《百濟研究》 5, 1974)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6) 이하의 서술은 金煥泰씨의 앞의 글에서 인용하였다.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와 화합의 세계가 이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설화의 형성배경에는 이러한 정신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즉 신라와 백제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어 두 나라 사이에 사랑과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 바람으로 인하여 설화가 형성될 때에 서동과 진평왕 사이가 친밀한 관계로 묘사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이 추측에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미륵사를 창건하였던 왕을 진평왕 당시의 백제 무왕이었다고 해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⁷⁾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에 의하면 미륵사를 위하여 미륵삼존상이 조상되었다. 미륵사는 이 미륵삼존상을 봉양하였을 것이다. 신라 불교의 경우, 미륵은 귀족세력을 상징해준다고 한다.⁸⁾ 미륵의 婆羅門 출생설화가 귀족에게 수용되어 미륵이 화랑으로 전생하였다는 견해와⁹⁾ 백제에도 신라의 화랑과 비슷한 청년조직이 있었으며, 신라의 화랑이 미륵신앙과 연결되는 것이 백제로부터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견해에¹⁰⁾ 의하면 백제에서도 미륵과 귀족의 관계는 밀접했다고 하겠다. 《삼국유사》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의 미륵설화에 의하면, 진자사가 미륵이 화생한 동자를 만나러 백제의 公州에까지 갔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백제와 신라의 미륵신앙이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백제의 미륵신앙 역시 귀족세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미륵을 봉양하였던 미륵사는 귀족의 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륵사는 왕비의 요청에 의하여 왕이

7) 彌勒寺址 石塔이나 石燈을 미술사적으로 검토한 논고에서도 미륵사가 무왕대에 건립되었을 것이라는 일치된 결론을 얻을 수 있다(高裕燮, 《한국탑과의 연구》, 1948; 金正基, 〈전형양식의 석탑과 彌勒寺址 석탑〉, 《馬韓·百濟文化》 창간호, 1975; 鄭明鎬, 〈彌勒寺址 석등에 대한 연구〉, 《馬韓·百濟文化》 6, 1983).

8) 李基白, 〈신라 초기불교와 귀족세력〉, 《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 1978, p. 89.

9) 金杜珍, 〈新羅 中古時代의 彌勒信仰〉, 《韓國學論叢》 9, 1987, p. 18.

10) 李基白, 앞의 글, pp. 92~94.

주도적으로 건립하였다. 무왕이 귀족사찰인 미륵사를 건립하였다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미륵과 轉輪聖王과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이 부자연스러운 점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하겠다. 미륵이 귀족세력을 상징해주는 반면에 전륜성왕은 국왕을 상징해준다고 한다.¹¹⁾ 전륜성왕은 미륵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미륵을 맞이하러 갔었다고 한다. 이는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에 보이는 왕이 용화산 아래의 큰 못가에서 미륵삼존과 만났다는 사실과 대응된다.¹²⁾ 즉 무왕은 미륵을 받들어 모심으로써 스스로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다. 무왕이 미륵사 건립을 주도하였던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전륜성왕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미륵사의 건립에서 知命法師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하였던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지명법사는 서동의 부탁을 받고 산더미처럼 쌓인 금을 신라의 궁궐에 날라다주었으며, 하룻밤 사이에 연못을 메워 미륵사를 창건하도록 하였다. 지명법사는 상당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知命이란 이름에서도 신통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신통력을 道家的인 요소로 간단하게 해석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 신통력은 오랜 토착적인 무격신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¹³⁾ 또 한편 지명법사가 거주하였던 사자사는 미륵이 도솔천에서 수행하였던 사자상좌를 상징해준다.¹⁴⁾ 지명법사는 미륵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명법사는 토착적인 무격신앙과 미륵신앙의 양면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선화공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화공주는 《삼국유사》未尸郎 眞慈師의 미륵선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¹⁵⁾ 미륵선

11) 李基白, 위의 글, p. 89.

12) 盧重國, 앞의 책, p. 202.

13) 金杜珍, 앞의 글, p. 20.

14) 이를 근거로 무왕 이전에는 미륵상생신앙이 유행하였다가 무왕 이후에는 미륵하생신앙으로 전환되었다고 파악한 견해도 있다(洪閔植, 〈百濟佛敎〉, 《崇山朴吉眞博士回甲紀念韓國佛敎思想史》, 1975, p. 85).

화는 미륵신앙과 관련되어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미륵선화는,

C. 至今國人稱神曰彌勒仙花 凡有媒係於人者曰未尸 皆慈氏之遺風也

라 하여 신선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여기의 신선은 토착적 무격신앙에서 만들어지는 신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¹⁶⁾ 그렇다면 선화 역시 토착적인 무격신앙과 미륵신앙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명법사와 선화공주의 양면성은 바로 귀족세력의 성격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¹⁷⁾ 그렇다면 미륵사의 건립에서 귀족세력의 입김이 깊숙히 미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륵사의 건립을 주도할 만큼 왕권이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거대한 귀족사찰을 건립할 수 있었던 귀족세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사료를 주목해보자.

- D-① 3年 8月 王怒令佐平解讐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我軍敗績 解讐 獲免 單馬以歸(《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② 8年 3月 遣杆率燕文進入隋朝貢 又遣佐平王孝隣入貢 兼請討高句麗 煬帝許之 今視高句麗動靜(《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③ 12年 2月 隋煬帝將征高句麗 王使國智牟入請軍期 帝悅 厚加饋錫 (《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④ 17年 10月 命達率苜奇令兵八千 攻新羅母山城(《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⑤ 28年 7月 王命將軍沙乞拔新羅西鄙二城 虜男女三百餘口(《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15) 金三龍, 〈百濟의 彌勒信仰의 特性과 그 歷史的 展開〉,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1983, pp. 123~144.

16) 金杜珍, 앞의 글, p. 21.

17) “미륵신앙이 귀족중심으로 수용되었다면 미륵선화는 어쩌면 불교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무불용화적인 경향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미륵신앙은 공인 이후 불교신앙이 신라사회에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이겠지만, 그것은 불교신앙을 빌리면서 사실 그 형태는 토착신앙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金杜珍, 위의 글, pp. 19~24)

- ⑥ 28年 8月 遣王姪福信入唐朝貢(《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⑦ 37年 5月 王命將軍于召 帥甲士五百 王襲新羅獨山城(《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위 사료는 무왕대에 등장한 인물을 연대별로 정리해본 것이다. 무왕대의 등장인물은 총 여덟 명이다. 그 가운데 解讐·燕文進·國智牟·苜奇·沙乞 등 다섯 명은 大姓八族이었음이 확실하고, 王孝隣은 틀림없이 대성팔족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福信은 왕족이었으며, 于召는 신원이 불명이다. 무왕 28년 이전에 활동한 여섯 명 가운데 다섯 명이 대성팔족이었다. 무왕 28년까지 대성팔족의 세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왕집권 중반기까지는 거대한 귀족사찰을 건립할 수 있었던 귀족세력이 온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왕이 귀족사찰인 미륵사를 주도적으로 건립하였다는 사실은, 미륵사의 건립이 무왕과 귀족세력의 타협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타협은 국왕이 미륵사 건립을 주도하였던 만큼 국왕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는 미륵사가 건립된 위치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미륵사는 당시의 수도였던 현재의 夫餘가 아닌 益山에 건립되었다. 동양 최대의 사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와 인력 등이 소모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사찰이었다면 당연히 수도에, 그것도 수도의 중심부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륵사가 지금의 익산에 건립되었다는 데에는 어떤 까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중심으로 국왕과 귀족세력의 타협과정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다음 사료를 주목해보자.

- E-① 馬龍池 在五金寺南百餘步 世傳舊童大王母築室處(《東國輿地勝覽》 권 33, 益山郡 山川).

② 第三十武王名璋 母寡居 築室於京師南池邊(《三國遺事》 권 2, 紀異 2 武王).

世傳에 서동대왕의 모친, 곧 무왕의 모친이 집을 지었다는 곳은 익산에 있었던 馬龍池라고 한다는 것이다. 마룽지는 사료 E-②에 의하면 京師의 南池로 표현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익산은 당시 백제의 수도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F. 百濟武廣王 遷都枳慕密地 新營精舍¹⁸⁾

이 사료는 牧田諦亮이 일본의 京都 東山에 있는 靑連院에서 찾아낸 〈觀世音應驗記〉를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를 黃壽永이 입수하여 백제의 익산천도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였다.¹⁹⁾ 익산을 수도로 여겼던 D-①, ②의 사료와 일치되는 점이 있어 흥미롭다. 그렇지만 무왕 31년까지 백제의 수도는

G. 春二月 重修泗泚之宮 王行熊津城 夏旱 停泗泚之役 秋七月 至自熊津 (《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31年).

이라 하여 泗泚였음이 분명하다. 의자왕 탈기까지 백제의 수도는

H. 王都西南泗泚河 大魚出死.(《三國史記》 권 24, 百濟本紀 義慈王 19年 5月).

이라 하여 역시 사비였음이 확실하다. 백제의 수도가 익산으로 옮겨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18) 黃壽永,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百濟研究》 4, 1973, p. 2에서 재인용

19) 黃壽永, 위의 글.

그렇다면 사료 E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이 사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채록되었는지 불명확하다.²⁰⁾ 이 사료의 신빙성에 상당히 큰 흠이 될 수 있는 점이다. 《삼국사기》에 천도와 같은 국가의 중대사가 빠져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이 京師로 인식되었던 점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수도로 인식되었다고 해서 꼭 천도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익산이 수도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 사료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I. (黑齒)常之與別部將沙咤相如據險 以以信(《三國史記》 권 28, 百濟本紀 義慈王 20年).

黑齒常之와 別部將 沙咤相如가 험한 곳을 거점으로 하여 부흥운동을 일으켜 복신과 내통하였다는 것이다. 別部將 沙咤相如是 別部の 장군으로 생각된다. 部는 백제의 중앙행정구역이었다. 백제는 중앙을 상부·전부·중부·하부·후부의 5부로 나누었다. 이 5부 가운데는 別部가 없다. 別部란 문자 그대로 특별히 설치한 중앙행정구역으로서 일반의 중앙행정구역에 나올 까닭이 없을 것이다.

백제의 수도였던 적이 없었던 익산이 京師로 인식되었던 점은 익산을 수도와 동일한 행정구역인 別部로 편성하여, 수도의 일부로 여겨졌었던 까닭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익산은 무왕의 출생지이자 성장지였으며, 미륵사가 건립되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곳이므로 그럴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여겨진다.²¹⁾ 즉 무왕은 귀족세력과의 타협을 유도하기 위하여 익산을 수도와 같은 행정구역인 別部로 편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귀족세력의 반발을 억제하면서, 자신의 출

20) 牧田諦亮, 〈百濟 익산천도에 대한 문헌자료〉, 《馬韓·百濟文化》 2, 1977, pp. 147~148.

21) 이를 〈觀世音應驗記〉에서는 천도로 오해했을 것이다.

생지이자 성장지인 익산을 수도로 격상시킬 수 있는 이종의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를 통하여 무왕대에 미륵사가 창건되었으며, 미륵사는 무왕과 귀족세력의 타협 아래 건립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무왕이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왕흥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Ⅲ. 王興寺의 건립

무왕대에는 백제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찰인 왕흥사가 건립되었다. 왕흥사는

J① 法王二年 春正月 創王興寺 度僧三十人(《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이라 하여 法王 2년에 처음으로 착공되기 시작하였다. 왕흥사가 완공된 것은

J② 武王 三十五年 春二月 王興寺成(《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이라 하여 무왕 35년(634)이었다. 무려 36년이란 긴 세월 끝에 완공되었다고 하겠다.

오랜 세월이 걸쳐서 왕흥사를 완공하였던 것은 왕흥사가 사비시대 백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왕흥사의 건립시기·과정·배경 등을 당시의 정치상황과 연결시켜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무왕대 정치상황의 중요한 일면이 드러나리라고 믿는다.

먼저 왕흥사의 건립시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J-③ 創王興寺於時都泗泚城……其寺亦名彌勒寺(《三國遺事》 권 3, 興法 3 法王禁殺).

왕흥사가 미륵사라고도 불리었다는 것이다. 왕흥사는 부여에 건립되었으며, 미륵사는 익산에 건립되어 있다. 왕흥사와 미륵사가 서로 다른 두 사찰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륵사라는 사찰이 왕흥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사의 건립연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왕흥사가 완공된 무왕 35년 이전에 미륵사가 건립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왕흥사의 시공은 미륵사의 시공시기보다 빨랐다고 생각된다. 미륵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왕 즉위 이후에 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비해 왕흥사는 법왕 2년에 시공되었다. 미륵사보다도 일찍 시공하였던 왕흥사가 늦게 준공된 셈이다. 신라의 최대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황룡사는 진흥왕 14년에 착공되어, 진흥왕 27년 혹은 진흥왕 30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²²⁾ 길게 잡아야 17년이 소요되었다고 할 것이다. 왕흥사의 경우 완공 당시의 규모는 잘 알 수 없지만, 착공된 지 36년 만에야 완공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여기에는 필시 무슨 까닭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사료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J-④ 明年庚申 度僧三十人 創王興寺於時都泗泚城 始立裁而升遐 武王繼統 父基子構 歷數紀而畢成(《三國遺事》 권 3, 興法 3 法王禁殺).

위 사료는 왕흥사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완공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법왕의 사망과 무왕의 즉위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료에서 법왕의 사망과 무왕의 즉위라는 커다란

22) 李基白,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 1989, pp. 69~70.

정치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는 왕흥사의 건립과정에 정치적 색채가 짙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역시 ‘父基子構’라는 구절에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구절은 부왕인 법왕에 의해서 왕흥사의 기초가 닦이고, 아들인 무왕에 의해서 왕흥사가 완공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의 사료에서 이 구절이 빠진다고 하여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무왕이 뒤를 이어 즉위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마침내 이룩하였다’는 표현으로서 충분하다. 이 구절은 법왕과 무왕대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삽입된 느낌을 받는다. 이 구절을 굳이 삽입하였던 까닭 역시 왕흥사의 건립에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법왕의 사망과 무왕의 즉위라는 정치적 사건을 더욱 깊게 추구해보도록 하자. 이 두 사건이 왕흥사의 건립과정을 해명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해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왕의 행적을 살펴보자. 법왕은 왕흥사 착공 전년에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던 鷹鷂까지 풀어주도록 하였으며, 漁獵의 도구까지 불사르도록 하는 엄격한 명령을 내렸다.²³⁾ 그 다음해 정월에 법왕은 왕흥사를 착공했으며, 그해 5월에 죽어버렸다. 법왕이 즉위 2년 만에 죽어버렸던 것이 자연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인 요인이 가해졌는지는 확인해볼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요인이 가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법왕 이전, 위덕왕·혜왕대에는 귀족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계율을 극히 중시하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던 것은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왕권의 급격한 신장과 무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²⁴⁾

23) “下令禁殺生 收民家所養 鷹鷂放之 漁獵之具焚之.” 《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法王 卽位年條.

해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법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계율을 중시하는 극단적인 명령이 내려졌을지도 모른다. 그 뒤 국왕의 권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한 기구 가운데 하나로 왕홍사가 시공되었다고 생각된다. 법왕의 일련의 파격적인 조치는 귀족들을 자극하게 되어, 이것이 법왕을 단명으로 끝나게 한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왕의 뒤를 이어 무왕이 즉위하였다. 익산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마를 캐면서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였던 서동이 무왕으로 상징된 만큼 무왕의 즉위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무왕의 즉위과정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숨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우여곡절 속에는 귀족세력과 왕실의 정치적인 암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법왕의 사망과 무왕의 즉위, 그에 얽힌 정치적인 암투 등으로 말미암아 왕홍사의 건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왕의 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점차적으로 무왕이 품모가 영특하고 志氣가 뛰어났었다는 평가를²⁵⁾ 받게 될 무렵부터 왕홍사의 건립이 재추진되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²⁶⁾

지금까지의 서술에 의하여 무왕의 즉위 이후 왕홍사 건립이 일단 중단되었다가 무왕이 다시 이를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홍사는 그 명칭상으로도 급방 느낄 수 있듯이 국왕의 권위신장을 위한 국왕사찰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왕홍사는 법왕의 권력강화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왕홍사의 건립이 일단 중단되었던 것은 국왕과 귀족과의 이해관계에 크게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왕이 왕홍사 건립을 재추진하였다면, 왕홍사 건립이 무왕의 입장에

24) 盧重國, 앞의 책, p. 196.

25) “武王 法王之子 風儀英偉 志氣豪傑.” 《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武王 卽位年條.

26) 이에 대해서는 IV에서 상세히 논술할 예정이다.

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왕의 왕흥사 재건립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虎岩寺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호암사는,

K-① 又虎岩寺有政事岩 國家將議宰相 則書當選者名或三四 函封置岩上 須與取看 名上有印跡者爲相 故名之。(《三國遺事》 권 2, 紀異 2 南扶餘 前百濟)

라 하듯 政事岩회의가 개최되었던 곳이다. 호암사가 어떠한 사찰이었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사암회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사암회의는 국가에서 장차 재상을 선출하고자 할 때 개최되었다. 재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귀족들의 대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을 재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다.²⁷⁾ 그렇다면 정사암회의는 귀족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회의였다고 하겠다.

정사암회의의 구체적인 기능을 사료상에서 더 찾아볼 수는 없을까? 비록 정사암회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의 사료들은 주목할 만하다.

K-② 餘昌謀伐新羅 耆老諫言 天未與 懼禍及。(《日本書紀》 권 19, 欽明紀 15年 12月)

③ 百濟餘昌謂諸臣等曰 小者今願 奉爲考王 出家修道 諸臣百姓報言 今君王欲得出家修道者 且奉教也…… 縱使能用耆老之言 豈至於此 請俊前過 無勞出俗 如欲果願須度國民 餘昌對曰 諾。(《日本書紀》 권 19, 欽明紀 16年 8月)

사료 K-②에 의하여 한강유역을 진흥왕에게 빼앗긴 이후인 성왕 31년(553)에 餘昌이 신라를 정벌하려고 하였을 때耆老들이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료 K-③은 한강유역 회복에 실패한 이후 백제의 정치

27) 宰相을 內臣佐平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盧重國, 앞의 책, p. 191).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즉 한강유역 회복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여창이 출가를 결심하였다는 것과, 이에 대해 諸臣百姓은 앞으로 기로들의 말을 잘 듣는다면 여창이 출가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만류하였다는 내용이다. K-②의 기로의 간언과 제신백성의 만류는 그들끼리의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었을 것이다. 기로와 제신백성이 참여했던 회의는 전쟁·왕위계승 등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²⁸⁾ 이 귀족회의가 정사암회의와 다른 것이었는지 혹은 같은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설혹 인원·참가범위·회의방법·회의내용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정사암회의와 기로, 혹은 제신백성이 참여했던 회의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정사암회의에서도 역시 국가의 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 전쟁·왕위계승 문제 등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면서 정사암회의가 열렸던 곳은 귀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을 것이다. 신라의 화백회의가 개최되었던 곳이 四靈地라고 불리어진 만큼, 귀족들에게는 신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경우에 비추어 정사암이 있었던 호암사는 귀족들에게 신성한 사찰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호암사는 귀족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사암회의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호암사의 권위를 약화시킬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호암사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될 수 있는 사찰을 건립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한 사찰은 국왕의 권위신장을 위한 사찰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추리해볼 때 무왕의 왕흥사 재건립 의도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왕이 왕흥사를 재건립하였던 것

28) 이는 신라의 화백회의나 고구려의 귀족회의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五品 이상의 관리들이 모여 ‘掌機密·謀政事·徵發兵·選授官爵’하였다(《翰苑》所引 高麗記). 그리고 신라의 화백회의도 ‘將議大事’를 하고자 할 때 소집되었다(《三國遺事》 권 1, 紀異 1 眞德王).

은 귀족회의체인 정사암회의의 권한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귀족세력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 아래 재건립된 왕흥사이기 때문에 귀족사찰인 호암사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되는 점이 많았다.

우선 먼저 이 두 사찰은 근거리에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왕흥사는 부여군 규암면 신구리 일대에 건립되었다고 한다.²⁹⁾ 그에 비해 호암사는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³⁰⁾ 왕흥사와 호암사는 같은 면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만큼 두 사찰은 쉽게 비교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사찰에서 행해진 의식 규모를 비교해보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완공되었던 왕흥사였던 만큼 그 예불에서도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L-① 又泗泚涯又有一石 坐十餘人 百濟王欲行王興寺禮佛 先於此石 望拜佛 其石自煖名澗石(《三國遺事》 권 2, 紀異 2 南扶餘 前百濟).

② 創王興寺於時都泗泚…… 王每命舟 沿河入寺 賞其形勝壯麗(《三國遺事》 권 3, 興法 3 法王禁殺).

③ 王興寺成…… 王每乘舟 入寺行香(《三國史記》 권 27, 武王 35年 2月).

백제왕이 왕흥사에 예불하러 가기 위해서는 사찰 맞은 편 泗泚涯에 있었던 澗石이라는 곳에서 미리 예불을 드리고, 배를 타고 行香의식을 거행하면서 절에 들어갔다고 한다. 돌석이라는 이름은 왕이 왕흥사 예불 전에 그 돌에 올라가 미리 예불을 할 때 그 돌이 저절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연유된 것이라고 한다. 돌이 저절로 뜨거워졌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그 돌 위에서 국왕이 대단히 성대한 의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돌이 뜨거워졌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왕이 왕흥사로 행차

29) 洪思俊, 〈虎岩寺址와 王興寺址考〉, 《百濟研究》 5, 1974, pp. 149~150.

30) 위의 글, pp. 147~148.

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배를 타고 가면서 行香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화려한 의식을 집행한 사람은 국왕이었다. 왕흥사에 예불드리러 가기 위해서 국왕이 직접 이렇게까지 화려한 의식을 집행하였던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하겠다.

백제 국왕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사암회의가 개최되었던 호암사에서 거행된 의식과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사암회의가 열리기 전 호암사에서는 굉장한 불교의식이 거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신라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M. 新羅有四靈地 將議大事 則大臣必會其地 謀之 則其事必成 一曰東靑松山 二曰南弓知山 三曰西皮田 四曰北金剛山(《三國遺事》 권 1, 紀異 1 眞德王).

신라의 화백회의는 靑松山·弓知山·皮田·金剛山 등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화백회의가 개최되었던 곳은 당시의 신라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라고 여겨졌다. 신성한 장소란 예로부터 무속신앙의 제의가 행해졌던 곳을 말한다.³¹⁾ 화백회의가 신성한 장소를 택하여 개최되었던 것은 그만큼 화백회의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화백회의가 개최되기 전 4영지의 신성한 기운을 빌리기 위한 어떤 일정한 의식이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백제의 귀족회의인 정사암회의가 개최되기 전에도 일정한 의식이 행해졌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의식을 집행하는 방식이 불교 전래 이후에는 불교의식으로 대체되었을 뿐이었을 것이다. 불교의식을 주최한 곳이 정사암이 있었던 호암사였으리라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결국 백제 국왕이 왕흥사에 예불을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화려한 의식을 거행했던 것은 귀족회의인

31) 金杜珍, 〈新羅上代末 初傳佛敎의 受容〉, 《千寬字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6, p. 278.

정사암회의가 개최되기 전 호암사에서 거행된 의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왕흥사의 화려한 장식도 이해할 수 있다.

N-① 其寺臨水 彩飾壯麗(《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35年).

② (王興寺)附山臨水 花木秀麗 四時之美具焉(《三國遺事》 권 3, 興法 3 法王禁殺).

왕흥사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고, 주위 경치가 대단히 훌륭했으며 채색이 화려했다는 것이다. 귀족회의가 개최되었던 호암사 역시 귀족들이 권위를 떨치고 있었을 때에는 그 장식이 매우 화려했을 것이며, 주위의 조경은 아름답게 꾸며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왕흥사가 국왕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건립되었다면, 호암사와 비교해서 그 주위 조경이나 장식이 뒤떨어졌을 리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왕흥사와 호암사의 위치·의식·규모·채색 정도 등을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왕흥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호암사를 견제하거나, 더 나아가 제압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왕흥사의 건립은 백제의 국왕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 점은 대단히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 국왕이 왕흥사 건립을 주도했던 목적은 호암사 자체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정사암회의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즉 무왕은 귀족세력을 견제 혹은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까지 왕흥사의 건립에 힘썼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무왕이 미륵사 건립 이후 왕흥사를 건립하였던 의도가 귀족세력과의 연합을 한걸음 더 진전시켜 귀족세력의 견제 혹은 약화까지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미륵사·왕흥사의 건립을 통하여 무왕의 전제권력이 어떻게 확립되어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무왕의 전제권력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었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IV. 武王의 권력강화

지금까지 무왕은 귀족세력과 타협하여 미륵사를 건립하였으며, 왕홍사 건립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왕권을 강화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무왕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권력을 얼마만큼 강화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비시대 백제의 왕권은 성왕의 관산성 패전 이후 위덕왕·혜왕·법왕대를 거치면서 약 50여 년 동안 귀족세력에 눌리어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었다. 무왕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삼국유사》 무왕조에 의하면, 흠이머니를 모시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생활을 하던 서동으로 상징되었다. 이는 무왕 역시 즉위 당시만 하여도 귀족세력에 눌리어 실제적으로 권력구조상에서 취약한 존재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왕이 미륵사·왕홍사의 건립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면 그럴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사료는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0-① 王怒命佐平解讐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軍乾品·武殷帥衆拒戰 解讐不利…… 我軍敗績 解讐僅免 單馬以歸(《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3年 8月).

② 諸軍見之奮擊 橫尸滿野 匹馬隻輪無反者(《三國史記》 권 45, 列傳 貴山).

백제의 佐平 解讐가 步騎 4만을 이끌고 신라와 전투를 했는데, 해수 혼자 겨우 살아돌아올 정도로 대패를 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0-②에 조금은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시체가 들에 가득하고 돌아간 말과 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료 0-①, ②에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제의 병력 4만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했었던 것만큼은 확실하다. 백제가 사비시대에 평시에 유지하고 있었던 병력은 6만 명이었다.³²⁾ 그 6만 명 가운데 4만 명의 병력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백제는 이 전투에서 상비군의 3분의 2에 달하는 병력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성왕의 한강유역 회복 전투에서 죽은 병력은 3만 명이었다.³³⁾ 그러므로 이 전투에서는 그보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겠다. 이 전투 결과 백제에서는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무왕은 귀족세력과의 타협을 원했다고 생각된다. 관산성 패전 이후 정치적 실권은 대성팔족이 쥐고 있었다. 대성팔족의 세력을 무시하고서는 당시의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성팔족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수 있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 조치는 귀족세력의 도움을 얻고자 하며, 동시에 귀족세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국왕의 의도를 함께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국왕과 귀족의 입장을 함께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조치로 미륵사가 건립되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륵사는 귀족사찰이면서 국왕을 전문성왕으로 격상시켜줄 수 있었다. 즉, 무왕은 阿莫山城 패전 이후에 야기될 사회적인 혼란을 국왕의 권력강화의 기회로 이용하였으며, 미륵사 창건을 통하여 그 목적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³⁴⁾

무왕은 아막산성 패전 이후 상당히 왕권을 강화해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음 사료는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32) “兵官佐平掌外兵 有六萬 方統十郡.”《唐書》百濟傳.

33) “於是 諸軍乘勝大克之 斬佐平四人 上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眞興王 15年 7月條.

34)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미륵사의 初創은 무왕 3년 이후가 될 것이다. 신라의 황룡사가 17년 만에 완공되었음을 고려해볼 때, 미륵사의 준공은 대략 무왕 20년 이후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 P-① 6年 8月 新羅侵東鄙(《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② 12年 10月 圍新羅椴岑城 殺城主讚德 滅其城(《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③ 讚德有勇志英節…… 百濟大學兵來 攻椴岑城一百餘日 眞平王命將以上州·下州·新州之兵救之(《三國史記》 권 47, 列傳 奚論).
- ④ 17年 10月 命達率苜奇領兵八千 攻新羅母山城(《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⑤ 19年 新羅將軍邊品等來攻椴岑城復之 奚論戰死(《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⑥ 24年 秋 遣攻侵新羅勒弓縣(《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⑦ 25年 10月 攻新羅速含·櫻岑·岐岑·烽岑·旌懸·冗册等六城取之(《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⑧ 百濟大學來侵 分兵圍攻速含·櫻岑·岐岑·烽岑·旌懸·冗册等六城 王命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五軍 往救之 既到 見百濟兵陣堂堂鋒不可當 盤桓不進 或立議曰 大王以五軍委之諸將 國之存亡在此一役…… 將佐皆以爲然 而業已受命出師 不得徒還(《三國史記》 권 47, 列傳 訥催).
- ⑨ 27年 8月 遣兵攻新羅主在城 執城主東所殺止(《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⑩ 28年 7月 王命將軍沙乞拔新羅西鄙二城 虜男女三百餘口 王欲復新羅 侵奪之分 大學出屯於熊津 羅王眞平聞之 遣使告急於唐 王聞之乃止(《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⑪ 29年 2月 遣兵攻新羅椴岑城 不克而還(《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 ⑫ 37年 5月 王命將軍于召 帥甲士五百 王襲新羅獨山城…… 于召登大石上 彎弓拒戰 失盡爲所擒(《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위 사료는 무왕대 백제와 신라와의 전투를 연대순으로 정리해본 것이다. 총 10회의 전투 가운데 백제가 승리한 경우는 4회(②, ⑥, ⑦, ⑧), 신라가 승리한 경우가 3회(④, ⑨, ⑩), 승패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가 3회(①, ③, ⑤)이다. 대체적으로 보아 무왕 3년 이후 백제가 신라와의 전투에서 우세하였다고 할 수 있다.³⁵⁾

35) 무왕대 백제와 신라와의 전투는 전부 신라의 영역 안에서 행해졌다. 신라가

특히 백제가 승리한 4회의 전투 가운데 ②, ⑥의 전투는 주목할 만하다. 이 전투들에서는 백제가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병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만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한 것을 대규모의 병력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Q-① 王怒命佐平解讐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武王 3年 8月).

② 眞平王建福十九年壬戌秋八月 百濟大發兵 來圍阿莫城(《三國史記》 권 45, 列傳 貴山).

사료 Q-①, ②는 무왕 3년의 아막산성 전투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다. 백제가 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경우를 대규모의 병력이라고 표현하였다.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된 전투라면 대략 3만, 4만 명이 동원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백제가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신라 五軍의 諸將들이 국가의 존망이 이 전투에 달려 있다고 했을 것이며,³⁶⁾ 상주·하주·신주의 세 주 병력이 백제군대를 감히 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전투에서 백제가 승리했던 것은 무왕의 권력강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무왕은 다시 한번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한강유역 회복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재빨리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한차례의 시도으로써 끝나버렸지만, 이는 무왕의 권력이 한강유역을 다시 회복하려

백제의 영역을 침범한 경우는 1회에 불과하다. 그리고 신라가 승리한 경우도 잃었던 영역을 다시 찾았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왕대 백제와 신라와의 전투에서는 백제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6) 물론 신라의 五軍의 諸將들이 六城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까닭에 이러한 명분을 제시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명분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실제로 대단한 전투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왜냐하면 백제가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했으며, 그것도 잘 훈련된 부대를 파견하였던 점을 고려해볼 때 그러하다.

고 의도했을 만큼 성장했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한강유역 회복기도가 무왕 28년에 있었다는 것은 이 시기가 무왕의 권력강화 과정에서 또 한번의 전환기였음을 암시해준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사료 D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그 어간의 사정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의상 사료 D를 도표로 만들어보았다.

등장 시기	武王 3年8月	武王 8年3月	武王 12年2月	武王 17年10月	武王 28年7月	武王 28年8月	武王 37年5月
등장 인물	佐平 解讐	扞率 燕文進 佐平 王孝隣	國智牟	達率 苜奇	將軍 沙乞	王姪 福信	將軍 于召

무왕 28년 이후에는 대성팔족이라고 할지라도 성씨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설혹 于召가 대성팔족이었다고 하더라도 성씨가 표기되지 않았던 것은 대성팔족의 권한이 그만큼 축소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성팔족의 활동이 무왕 28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써 무왕 28년을 기점으로 무왕의 권력강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왕 28년을 전후로 하여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왕홍사가 재건립되기 시작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무왕 35년에는 무왕의 권력강화를 상징하는 왕홍사가 완공되었다. 왕홍사의 완공과 함께 무왕은 대단한 정치권력을 행사했다고 여겨진다. 《삼국사기》 권 27 백제본기 무왕조에서 왕홍사 완공을 전후로 한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 R-① 31年 2月 重修泗泚之宮 王行熊津城 夏旱 停泗泚之役。
 ② 33年 正月 封元慈義慈爲太子。
 ③ 35年 3月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 擬方丈仙山。
 ④ 37年 3月 王率左右臣僚 遊燕於泗泚河北浦 兩岸奇巖怪石錯立 間以奇花異草如畫圖 王飲酒極歡 鼓琴自歌 從者屢舞 時人謂其地爲大王浦。

무왕은 왕흥사 건립 이전에는 사비궁을 중수한다거나, 義慈를 태자로 임명하였으며, 왕흥사 건립 이후에는 멀리 20여 리로부터 물을 끌어들이어 宮南池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못 안에는 方丈仙山을 모방한 산을 만들었으며, 또한 경치가 수려한 대왕포와 망해루에서 대단한 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무왕의 권력강화가 상당히 추진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무왕이 아들 의자를 태자로 임명함으로써 종래 귀족회의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의 하나인 왕의 즉위 문제에 대하여 귀족의 간섭을 배제시켰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중국 전제권력의 상징인 진시황제를 모방하여 방장선산을 만들었던 것은 무왕의 전제권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무왕의 전제권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대성팔족의 세력을 무시할 정도로 성장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 사료는 이를 방증해준다.

S. (法王)創王興寺於時都泗泚城 始立栽立升遐 武王繼統 父基子構 歷數紀而必成 其寺亦名彌勒寺 附山臨水 花木秀麗 四時之美具焉(《三國遺事》 권 3, 興法 3 法王禁殺)

위 사료는 왕흥사의 건립과정과 건립된 이후의 왕흥사의 모습을 전해 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료는 王興寺를 彌勒寺라고도 불렀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왕흥사와 미륵사가 분명히 다른 사찰이기 때문에 엮여진 부분이 잘못 삽입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이 아무런 까닭없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왕흥사가 건립된 이후에 왕흥사를 미륵사라고도 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성팔족의 세력은 의자왕대까지 상당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대성팔족의 세력이 비록 쇠퇴해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의자왕 15년까지 대성팔족의 세력은 백제사회내에서 여전히 좌평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을 정도로 상당하였다.³⁷⁾ 왕흥사가 건립되었던 무왕 말기까지도 대

성팔족은 여전히 큰 세력으로 존재하였다고 하겠다. 대성팔족의 입김이 왕권의 상징적인 사찰이었던 왕흥사에 미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했을 때 왕흥사를 미륵사라고도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무왕의 권력강화의 한계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여 무왕은 603년 좌평 해수의 아막산성 전투의 패배를 계기로 차츰 국왕의 권력강화를 이룩할 수 있었으며, 628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국왕의 권력신장을 저지해왔던 대성팔족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왕은 상당한 정치권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대성팔족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지금까지 彌勒寺와 王興寺의 건립을 통하여 무왕의 권력강화를 살펴 보았다. 우선,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의 분석을 통하여 미륵사의 창건 시기는 백제 무왕대였음을 밝혀보았다.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에 의하면, 역사적 사실과는 달리 미륵사를 창건한 백제의 왕과 신라 진평왕 사이는 대단히 친밀한 관계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설화상의 세계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현실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바람이 투영된 것이다. 즉 미륵의 이상세계인 사랑과 평화와 화합의 세계가 백제와 신라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륵사를 건립한 백제의 왕은 신라의 진평왕과 같은 시대의 인물인 무왕이라고 할 것이다.

미륵사는 미륵삼존상을 봉양하였다. 미륵이 귀족세력을 대표하였던 만큼 미륵사는 귀족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륵사는 국왕의 주도 아래 건립되었다. 이는 무왕이 자신을 전륜성왕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륜성왕과 미륵이

37) 金周成, 〈義慈王代 정치세력의 動向과 百濟滅亡〉, 《百濟研究》 19, 1988, pp. 265~267.

만나는 장면이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에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거대한 사찰인 미륵사를 건립하였을 정도로 건재하였던 귀족세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즉 무왕과 귀족세력의 타협 아래 미륵사가 건립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타협은 국왕이 유리한 입장에서 끌어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륵사 건립은 국왕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미륵사가 세워진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륵사가 동양 최대의 사찰인 만큼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부여가 아닌 익산에 건립되었다. 익산은 무왕의 출생지였으며 성장지였다. 무왕은 귀족세력과의 타협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곳을 수도와 같은 행정기능을 갖는 別部로 편성함과 동시에, 이곳에 미륵사를 건립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귀족세력의 반발을 억제하면서, 자신의 출생지이자 성장지인 익산을 수도로 격상시킬 수 있었던 이종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왕흥사 건립을 귀족회의체인 정사암회의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정사암회의는 귀족대표의 선출·전쟁·왕위계승 등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였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사암회의가 개최되었던 곳이 虎岩寺였다. 무왕이 미륵사 건립을 통하여 귀족세력과의 타협을 모색한 뒤에는, 다시 국왕의 강력한 전제권력을 회망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귀족회의가 갖는 권한을 제한해야 했을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무왕은 정사암회의가 개최되었던 호암사에 대응할 만한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 사찰이 바로 왕흥사였다.

왕흥사는 국왕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건립된 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귀족세력의 심한 반발을 받아야만 했었다. 그것은 왕흥사의 건립과정에서 한차례 중단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확실하다. 왕흥사는 법왕 2년에 착공되었다. 그해에 법왕은 무리한 권력강화로 인하여 피살되었을 가능성이 큰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왕이 즉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왕흥사의 공사는 일단 중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건립되었던 왕흥사는, 호암사와

근거리에 있었던 까닭에 서로 쉽게 비교될 수 있었다. 국왕이 왕홍사에 예불을 올리기 위해서는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왕홍사의 채식이나 주위 조경은 매우 화려하게 꾸며졌다. 이는 모두 호암사를 염두에 둔 까닭이었다. 결국 무왕이 왕홍사를 건립하였던 것은 호암사에서 개최되었던 귀족회의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무왕의 전제권력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만큼 강화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무왕 3년 解讎는 아막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대패하였다. 그는 이 전투에서 백제의 상비병 6만 가운데 4만을 잃어버렸다. 관산성 전투보다도 더 큰 피해였다. 이로 인하여 백제에서는 큰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혼란을 극복하면서 무왕은 귀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귀족세력과의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미륵사의 창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무왕은 대규모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몇 차례 거두었다. 이는 무왕의 권력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무왕은 다시 한번 한강유역 회복을 기도하였으나, 신라의 재빠른 당 구원 요청으로 결국은 행동에 옮기지 못한 채 끝내고 말았다.

한강유역 회복을 기도하였던 무왕 28년을 전후로 하여 대성팔족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그만큼 무왕의 권력강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무왕 28년을 전후로 하여 왕홍사의 공사가 재추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왕홍사가 건립된 무왕 35년을 전후로 한 무왕의 행적은 권력강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무왕의 이러한 전제권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성팔족의 권한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무왕의 권력강화의 한계성이 있었다고 하겠다.